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문대					
일시/장소	일시	25.10.13 / 15:00~ 18:00			장소	C- square Amber orange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2****	이름	문*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남*경
	참석인원(명)	(3/ 3)		참가자 대표	문*영 (서명)	
도서	도서명	소송			저자	프란츠카프카
	출판사	문예출판사	출판연도	2024.09.10	번역자	김현성
오늘의 북클럽 주제	정보와 체제속 개인의 '순응'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소송의 줄거리                  : 요제프 K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참여하게 되며, 법원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K는 처음 상황의 부조리를 의심하고 저항하지만, 점차 소송의 조재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그 체계에 끌려 들어간다. 결국 그는 끝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처형을 당하게 되며, 소설은 이해할 수 없는 권력과 제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순응하고 무력해지는지를 드러낸다.</p> <p>I. 활동 개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이번 북클럽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을 중심으로, 정보의 부재와 체제의 불투명성이 인간의 순응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작품 속 K의 행동, 발언 그리고 서술의 변화 과정 등을 통해 그가 왜 점차 순응하게 되었는지 정보와 권력이라는 대주제에 따라, 사회적·심리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p> </div>						

## II. 활동 방법

### 1. 『소송』을 읽고 각자 느꼈던 감정 공유

이\*영

: 소송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단연 확실히 느낀 것은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정보의 제한으로 인한 K의 혼란스러움은 보는 나까지 답답하게 만드는 장면을 유발했다. K의 일이지만, 정보의 제한으로 K는 자신이 어떠한 연유로 소송에 휘말렸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정보의 제한에 대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하고 정보의 제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등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었다.

남\*경

: 소송을 당한 K가 초반부 자신의 완전무결을 주장하며 소송에 완전히 무감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소송의 과정을 거쳐가며 점차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위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채 소송에만 얽매이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K의 행동 변화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초반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일상, 직무와 소송을 칼같이 구분하던 K가 나중에는 소송과 자신의 일상, 직무를 구분 짓지 못하고 소송에 의해 완전히 정신적으로 함락당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놀랐다. 이러한 K의 행동 변화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구조가 개인에 비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강한 힘이 정보의 독점, 제도적 위계,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문\*영

: 소송을 읽을 때 K라는 사람이 집에서 일어나니 집에 사람들이 와 있었고, 감시원이 K의 집을 점령하고 있었다. K의 집 찬장에 있는 아침식사를 빼앗아 먹거나 무슨 이유로 소송을 당했는지 감시원에게 물어보지만, 감시원은 계속해서 상부의 지시만 따를 뿐 본인은 이유를 모르며, 당신이 왜 소송을 당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하며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 K는 집 건너편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처지를 구경당하며 해당 소송이 어째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지만 전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감시원의 상사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전혀 그 내막을 알 수 없었다. 회사에 지장이 된 현 상황을 매우 난처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떳떳하게 생활하고자 하며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게 판단하고자 한다. 와중에 감시자의 동행이 있던가 비록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어 소송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든 의문은 왜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건지에 대한 주인공을 향한 답답함과 의문점이 계속 들게 된 것 같다. 소송을 당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점이 나에게서 해당 소송의 실효성을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극 초반을 제외하여 보았을 때 주인공이 소송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도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어떠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소송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주인공의 이성적인 면모가 처음부터도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하였다. 만약 주인공이 지금의 나였다면 소송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 같다. 다만 후에 법정에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현재 상황이 진짜 소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한 법정에서도 본인의 죄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아닌 지금의 자신의 환경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변론만 주장할 뿐 본질적으로 본인의 죄를 인지하는 것 처럼 보이는 행동이 매우 이해가 가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주요 관계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있어 상세한 내막을 모른다는 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이 점 또한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가 갔던 지점이었다.

위계나 절차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일처리를 가능케 하지만, 효율에 대한 개념이 과연 누구의 것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던 것 같다. 또한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에서 법에 대한 제정이나 정치라는 환경에 누군가를 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점점 우리의 손아귀에서 멀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에 나오는 K에 영향을 준 주변인이 아니라 핵심 기관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부조리하고 다시금 정보라는 개념의 힘과 과연 이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다시금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평소 공리주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다수의 행복에 소수의 감내는 어떤 사람으로 정해지든지, 이에 대한 지정도 결국은 우연성에 관한 지배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현재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점점 더 비판적인 사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보인다.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상태가 단순 과거와 같은 무기력에 더해서 오히려 본인을 착취하는 대상을 위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가 과거와 비해 더욱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K는 어떠한 작용으로 순응하게 되었는가

이\*영

: K는 정보의 제한으로 처음 체포를 당할 때는 믿지 않았다. 부정의 단계였다. 그 후, 법정에서 가게 되자 재판이 부당하다며 반항한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재판관을 본다. 체계는 있지만 자신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체계임을 깨닫고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많은 인물들을 통해 재판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K에게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받아드리지 못한 K는 포기한다. 이때부터 순응하기 시작한다. 순응하기 시작하며 재판 체계에 대해 체념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처벌 장소로 가고, 저항하지 않으며 순응으로 마무리한다.

남\*경

: 초반부 K는 이유 모를 체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소송과 자신을 구분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조롱하거나 무시하던 재판에 점차 순응하기 시작하며 마지막에는 소송과 자신의 일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노력하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결국 K는 구조의 강력한 힘에 의해 순응하게 된 것이다.

문\*영

: K의 순응은 단순한 포기를 넘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그는 처음에 소송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강하게 저항하지만, 법원의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일상화했던 것 같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저항에 대한 무의미함과 체계의 적응이 유일한 생존 방식으로 느껴지게 했던 것 같다. 결정적으로 K는 소송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면서 체계에 순응하는 태도를 이성적 선택처럼 합리화한다. 처음엔 의문을 제기했던 그였지만, 나중에 소송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종속시키며 논리를 내면화 하였다. 반복되는 무력감 속에서 길들여진 결과로 순응하게 되었다.

### 3. 현대적 확장: 정보의 비대칭과 선택의 허상

이\*영

: 소송은 정보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현대는 정보가 과하다. 과한 정보 전달로 인하여 정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모든 정보가 옳은 정보는 아니다. 정보는 틀린 것과 맞는 것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는지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정치 기사를 접하다 보면 같은 사건도 매우 다르게 다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탓하는 기사를 정확한 기사, 옳은 기사로 보고 상대를 탓할 때 '믿음직한 정보'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사는 기자의 사건이 붙는 글로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판단은 빼놓고 기자의 사건이 붙은 글을 정답으로 칭하고 정보로 받아드리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듣기 좋은 정보더라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실행해야 한다. 또, 요즘은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보를 골고루 받아드리지 못한다. 내가 읽기 좋아하는 글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택해서 나에게 제공하기에 우리는 그중에 정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 번 거름망을 거른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한다. 앞으로의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착각하지 않는 법과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법을 배우길 희망한다.

남\*경

: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허상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되어 어떤 정보가 노출되고 숨겨지는 지를 기업이 결정하며 개인의 인식 범위를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정보)의 양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금융, 의학 등의 분야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며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말에 종속되고 자신의 판단권을 상실하는 모습 또한 쉽게 볼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신이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구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문\*영:

현대 사회의 정보 구조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이미 결정된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왜 이정보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토론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K의 가장 큰 문제는 설명되지 않은 구조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현실이 저항의 방향의 상실로 불공정한 상황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리즘이나 제도 속에서 경험하는 '선택의 허상'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 4. 현대 사회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 요구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영

: 설명되지 않은 채 요구받고 있는 것은 매우 많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회체제도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 할 뿐 요구받고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엘리베

이터에 지금 당장 타지 않을 것이라면 안 타는 것을 티내기 위해 유독 천천히 걷는다든지, 잠시 다른 곳을 본다든지 등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순한 것들도 설명되지 않은 채 요구받고 있다.

남\*경

: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일어나는 감정노동의 의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친절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규범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감정규범에 가깝다. 이러한 감정규범은 얼마나 웃어야 하는지, 어떤 말투가 친절한 말투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노동자는 고객이 원하는 감정 상태를 스스로 추측해내야 한다. 기준이 없으니 더욱 과장된 웃음과 부드러운 말투를 요구 받게 되며, 감정 소진이 심해지는 문제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감정노동은 정확한 노동량이 측정되지 않는 노동이기에 더욱 이용되거나 착취되기 더욱 쉽다. 그 결과 서비스 노동자는 설명되지 않은 채 부과되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직원이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식의 책임을 안고, 감정적 부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문\*영

: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야만 한다는 요구를 받으며 살아간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하며, 자기계발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왜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누구에 의해 설정되었는지는 보여지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삶이라고 믿게 된다.

### 1회차 소감문

이\*영

: 이번 학기 심비우스 북클럽을 처음 시작했다. 꽤나 난이도가 높은 책을 고른 것만 같아서 긴장되고 '소송'이 안 읽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토론하기 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친구와 친한 언니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니 재밌었다. 평소에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주로 대화했는데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서로 느꼈던 점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비교하기도 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더욱 새로움과 재미를 주었다.

남\*경

: 심리에서 k가 자신의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닌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얘기하는 점이 이해가 안 갔다고 한 주장이 흥미로웠다.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k와 같이 행동했을 것 같았기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신기했다. 또 K가 순응한 요인 두 가지(체제의 존재, 정보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K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요인에 의해 커다란 권력 앞에서 순응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문\*영

: 이전에 독서토론과 같은 활동을 해본 경험이 크게 많지 않아 다같이 토론을 진행하는데 매끄러운 진행은 쉽

지 않았던 것 같다. 평소 책을 선정할 때 고전 문학 보다는 비문학이나 최근에 출판된 소설을 읽는게 익숙해서였는지,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책을 쉽게 읽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다같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주인공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점, '소송'안에서의 부조리한 체제에서 가장 답답했던 장면을 얘기할 때 내가 가장 답답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평소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다.

#### 활동 결과

이번 북클럽에서 개인이 설명되지 않은 권력구조 속에서 어떻게 순응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소송의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요제프 K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며, 단순한 억압이 아닌 “정보의 부재와 체계의 불투명성”이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하였고, 현대 사회로의 확장을 통해 현대인의 선택 역시 자유라기보다 구조에 대한 순응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함.

####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문대					
일시/장소	일시	25.10.20 / 15:00~ 18:00			장소	17203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2****	이름	문*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남*경
	참석인원(명)	(3/ 3)		참가자 대표	문*영 (서명)	
도서	도서명	이방인			저자	알베르 카뮈
	출판사	문예출판사	출판연도	2024.09.10	번역자	김화영
오늘의 북클럽 주제	감정 규범과 사회적 정보 속에서 개인의 '배제'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이방인의 줄거리</p> <p>: 이방인은 총 2부로 이루어진다. 1부에서는 뫼르소가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장례식에 가게 된다. 장례식에서 뫼르소는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무표정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은 그를 냉정하고 비정상적으로 본다. 장례 후 뫼르소는 마리를 만나게 된다. 뫼르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리와 데이트를 한다. 어머니의 죽음에서 뫼르소는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다. 뫼르소의 이웃인 레이몽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여자(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뫼르소에게 부탁한다. 뫼르소는 그 부탁에 응한다. 그로 인해 레이몽은 뫼르소와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레이몽의 여자친구의 오빠인 아랍인이 복수하기 위해 레이몽과 뫼르소를 따라와 해변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뫼르소는 태양의 눈부심에 정신이 아득해지며 권총을 쏘 아랍인을 살해한다. 뫼르소는 살인죄로 체포된다. 그후 조사과정에서 살인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태양이 뜨거워서라고 답한다. 수사관들은 그의 감정결핍에 집중하여 살인죄보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법정에서는 그의 태도에 더욱 집중하여 죄의 유무보다도 감정 결핍,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을 수행하지 못함을 문제 삼는다. 결국 뫼르소는 사형을 선고받고 신부를 만나도 신을 믿지 않는다. 결국 뫼르소는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사형을 앞둔 뫼르소의 모습을 그리며 소설이 끝난다</p>						
<p><b>I. 활동 개요</b></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이번 북클럽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정보의 의미화 과정에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비롯하여, 뫼르소를 사회가 '비정상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분석을 통해 사실보다 감정이 우선되는</p>						

사회적 정보 구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자 하였다.

## II. 활동 방법

### 1. 『이방인』을 읽고 각자 느꼈던 감정 공유

이\*영

: 이방인의 유명함만 알고 시대적 배경이나 카뮈라는 작가의 기초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방인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배경에 깔아두고 진행되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방인에서의 감정 결핍된 사람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우리나라와 정서적 차이 때문인지 감정 결핍된 사람이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모습도 적지 않은데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상화를 하는 모습이 적지 않게 보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뫼르소의 감정 결핍이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또, 뫼르소의 재판 결과에도 뫼르소를 향한 사회적 낙인과 이미지를 통한 모습이 영향을 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미지화된 정보만을 보고 판단했던 적이 없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에게 감정와 합쳐진 과장됐을 수 있는 정보와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알면서도 과장된 정보를 믿은 적 없는지 스스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남\*경

: 이방인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은 인상은 뫼르소가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의 핵심 정보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재판은 사실, 증거, 논리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설 속 재판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뫼르소가 장례식에서 보인 감정이 결여된 모습에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였다는 점이 불합리하다 느껴졌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을 떠올렸을 때, 나 또한 재판 속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의 핵심 정보에 감정을 투영하여 보았던 경험들이 생각이 났다. 이를 통해 감정이 정보보다 앞서고, 그 감정이 정보를 규정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문\*영

: 이방인 속 주인공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부재했던 모친의 장례식에 크게 동요되지 않으며, 감정이나 공감 이 아닌 분석만을 고려하는 인물이다. 해당 인물이 '마리'라는 여자와 만나게 된다. 그 여자는 뫼르소와는 '다른' 평범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뫼르소라는 인물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개인적 견해에 따른 평가보다 그 상황에 대한 평가만 남아있는 것이 꼭 제 3자의 서술가 입장에서 보는 님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성온 감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인공은 정말 이성과의 분리가 가능해 보일 정도로 냉담한 사람이었다. 마리에 대한 감정 또한 본인의 욕망에 의거해 행동하였지 감정의 동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더운 태양으로 인해 이성이 약해졌던 건지 아랍인을 사살했던 주인공이 사람에게 대한 사살이라는 죄보다도, 냉담한 태도로 인한 계획살인등의 입장으로 과도한 형벌을 받아 결국 처형에 당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욕망에 의거했던, 아니든 마리라는 인물로 욕구 이상의 감성을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느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물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개념을 카뮈는 말하고 싶

있던 걸까? 과연 이 도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우리의 북클럽 주제에 적합한 소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다. 다만, 주인공이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태도나 나오는 조금 달라 배제하려는 모습, 또는 여론의 형성이 악인을 만들려는 모습이 확증편향을 만들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

## 2. 무엇이 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의 vs 사회적 의미)

이\*영

: 둘 다 정보가 되지만 사람들이 한순간에 쉽게 믿게 되는 정보는 사회적 의미를 담은 정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감정이나 사회적 틀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지대할 것이다. 그러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지하지 못하는 힘은 생각과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각에서 조금은 과장되고 조작된 정보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감정적이고 사회적 의미가 담긴 정보가 끌리게 하는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경

: 이방인을보고 느끼게 된 정보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회가 선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뫼르소가 사실만으로 재판 받지 않고, 사회가 만들어낸 해석된 정보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현대 사회도 이방인처럼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정보가 훨씬 강력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볼 때 우리는 뉴스의 제목/헤드라인을 통한 첫 인상으로 감정이 선점되고, 자극적인 제목이나 도발적인 한 문장으로 우리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기사에 대한 분노, 연민, 짜증 등의 감정이 바로 발생하는 것처럼 결국 현실의 정보 또한 중립적 사실이 아닌 사회가 부여한 감정적 의미나 서사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문\*영

: 토론 초반 내가 생각하는 정보는 단순한 사실이나 객관적인 데이터 그 자체이며, 이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뫼르소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영향을 받은 날씨와 인지 저하등은 개인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원인이라고 받아들였다. 실제 현대 사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심신미약과 같은 상태를 인정하는 듯이 토론을 진행하는 초반까지는 정의와 같은 물리적 사실이 정보이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해 가능한 정보라고 느꼈다.

하지만 뫼르소는 살인의 결과만이 아닌 이전 모친 상에서 보인 '감정 결핍'이 뫼르소의 재판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정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설명의 구조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사회에서 정의되는 정보는 그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과와 맥락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뫼르소의 살해 장면의 물리적 영향력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기 보다 사회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감정 규범을 기준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법정은 살인의 물리적 조건보다 뫼르소가 보인 감정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해당 과정에서 사회에서 정의되는 정보라는 개념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닌, 정보는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선택되고, 해석되고 구성된다는 사실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설명 가능한 맥락으로 삼았는지 의미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해당 선택이 감정이나 권력의 기준에서 보았든 사회적이며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결국 정보란 현실 그대로의 반영이 아닌, 현실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이다. 해당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 어떤 사실이 배제가 되는지는 권력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 3.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난, 권력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조직된다.'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영

: 정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해석된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화씨와 섭씨처럼, 0도와 100도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세계를 나누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성립한 개념 처럼, 정보 역시

사회가 어떤 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에서 뫼르소의 살인 행위는 물리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이라는 설명 가느안 정보가 있었음에도, 법정은 사실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친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은 태도라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었고, 이는 사실의 존재 보다 어떤 사실이 의미 있는 정보로 선택되었는가였다. 해당 과정은 정보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 규범, 권력 구조 속에서 재배치되는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어떤 사실이 '중요한 정보'로 채택되는가는 그 사회가 무엇을 정상으로 간주하는지, 어떤 감정을 요구하는지, 어떤 인간상을 이상으로 설정하는지에 결정된다. 대통령이나 국가의 대표를 언급하는 것이 각 나라별로 다른 평가를 받는 것 처럼 정보는 언제나 특정한 시선과 기준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남\*경

: 정보가 권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벗어나 조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정보에서 권력이나 사회적 맥락이 가지는 힘은 강력하다. 기업이 유리한 통계만을 광고로 사용 한다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브이 포즈가 긍/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등 권력과 사회적 맥락은 정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이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나 조직 된다고 보다는 사실은 존재하나,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가공된 형태로 존재하는 2차적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이\*영

: 정보는 권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조직된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정보 또한 조작할 힘이 있다. 그리하여 정보가 권력을 통해 조직될 것으로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 맥락 또한 조작할 힘이 있다고 예상한다. 사회적 맥락이 조작된다면 그 맥락에 따라 정보는 객관적 사실보다도 사회적 맥락과 권력가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조직될 것이다. 사회적 맥락은 동시대 사람들의 기저에 깔리는 맥락이기에 동시대 사람이라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 정보는 조작되고 조직된다고 생각한다. <o:p></o:p>

#### 4. 소송과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영

: 소송과는 사회가 다루는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소송에서의 정보는 K를 제외한 이들만 알고, 심지어 모르는 이들도 권력을 천 사람들의 말을 믿고 K를 비난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은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방인은 뫼르소가 사회적 시선에 의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감정적 압박을 받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통해 소송에서는 K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정보(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방인에서 뫼르소가 인지하지 못한 사회적 정보(감정 결핍을 재확인하는 듯한 질문)를 독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남\*경

: 가장 먼저생각난 공통점은 개인이 구조와 제도의 압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모습이었다. 소송의 경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k가 법정,관료제라는 구조에 의해 힘을 잃었던 모습, 뫼르소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 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감정 규범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받은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졌다. 이를 통해 구조가 개인보다 훨씬 강력하며 개인의 말과 행동 뿐만 아닌 감정까지 거대한 틀에 의해 해석되고 통제된다고 느꼈다.

문\*영

: 내가 느끼는 정보는 더 이상 객관적 진실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해석을 통해 조직되는 유동적인 개념에 가깝다. 어떤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정보'로 기능하는 순간 특정한 기준과 시선이 개입된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카프카의 소송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작품 속 K가 어떤 이유로 기소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소송 중인 자'라는 규정된 신분 안에서 점점 순응해 가는 과정을 그리듯이 소송의 실체보다 소송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처럼 K에게서도 진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죄가 있다는 것 보단 죄가 있다고 간주되는 구조 안에 놓여있는 사실은 정보라는 개념이 일관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나는 정보가 사회적으로 조직된다고 느끼게 되면서, 소송속 세계 또한 실체가 아닌 의미화된 구조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생각했다. 결국 소송과 이방인은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가 아닌, 어떤 정보가 선택되었고 신뢰되는가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진실이 아닌 '해석된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고 느낀다.

### 2회차 소감문

이\*영

: 앞서 1회차에서 한 소송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게 책을 읽어서 토론에 저번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미있었고 카뮈가 이방인을 작성했을 때의 시간적 배경을 알고 뫼르소가 왜 감정 결핍된 사람으로 나왔는지 추론하니 재밌는 토론과 북토크였다.

남\*경

: 사실 이제껏정보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독서와 토론을 통해 정보가 감정을 함의하고 정보 생산자에 의해 주관적 해석이 더해져 배포될수도 있다는 것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고, 이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문\*영

: 개인적으로 정보에 대해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다. 각자 정보를 다루는 개념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조금씩 상이했던 게 기억이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나랑 효경이는 뫼르소의 살인 원인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영이는 전혀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 재밌었던 것 같다.

### 활동 결과

이방인을 통해 감정 규범 속에서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개인이 어떻게 배제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뫼르소가 감정이 결여된 인물을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감정적 판단을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고 배제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문대					
일시/장소	일시	25.11.10 / 15:00~ 18:00			장소	17203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2****	이름	문*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남*경
	참석인원(명)	(3/ 3)		참가자 대표	문*영 (서명)	
도서	도서명	프로파간다			저자	에드워드 버네이스
	출판사	공존	출판연도	2009.07.20	번역자	강미경
오늘의 북클럽 주제	선전의 낙관성과 기술 권력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					
활동 내용 & 방법						
<p>프로파간다의 줄거리</p> <p>: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는 통념을 비판하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소수 엘리트가 선전(프로파간다)을 통해 대중의 생각과 욕망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는 선전을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로 바라보며, 여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집단이 대중의 무의식을 설계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선전이 정치, 소비,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인간의 선택과 판단을 통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민주주의가 자율적 사고가 아닌 관리된 동의 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p> <p><b>I. 활동 개요</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이번 북클럽은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선전이 대중의 심리와 선택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성공한 선전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보의 '의도성'과 '은폐성'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p> </div>						

## II. 활동 방법

### 1. 『프로파간다』를 읽고 각자 느꼈던 감정 공유

이\*영

:프로파간다는 대중심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선전을 통해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알린다. 프로파간다에서 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정보에 어떠한 것을 통해 도달하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점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대중심리 조작에 당해버린 사례일 수 있다. 우리의 선택 하나에도 많은 선전의 결과라는 것이 뚜렷히 느껴짐에 불쾌함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책이었다.

남\*경

: 프로파간다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자유롭다는 착각이라는 개념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소수의 집단이 여론/소비/행동을 조용히 설계하고 조정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믿음을 자유의 착각이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쉽게 조종된다고 말한다. “나는 광고에 안 속아” “나는 내 판단으로 선택해” 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의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에 있어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조작이 더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며 쓴 건 아닌 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살면서 했던 행동들 (자주 먹는 음식, sns에 좋아요를 누른 영상들 등)이 모두 자유의지로 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구조가 나를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심연의 진실을 보게 된 불편함마저 약간 느껴졌다

문\*영

: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는 선전을 대중 조종이 아닌 사회 운영을 위한 합리적 도구로 설명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관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느꼈으며, 선전이 실제로는 특정 주체의 목적에 따라 대중을 통제하는 위험한 도구라고 보았다.

선전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으나, 그 목적이 ‘이상적’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성 자체가 권력을 가진 주체의 해석일 뿐이며, 기술 발전이 선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오히려 기술은 선전의 정교화를 가속화하고, 대중은 이를 비판적으로 구분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성공한 선전은 점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우리는 이미 어떤 이념에 잠식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로파간다』는 선전을 긍정하려 했지만, 나에게서는 오히려 정보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 2. 기술 발전은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키는가, 강화시키는가?

문\*영

: 버네이스가 주장한 기술 발전은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기술의 발전은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더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선전의 윤리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술의 목적이 인간의 이상적인 윤리관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언제나 더 나은 인간이 아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발전해왔고, 그 방향은 역시 윤리가 아닌 자본과 효율의 논리에 결정이 되어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선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순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술은 비사회적이든 사회적인 선전들의 방식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침투하게 만든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정보가 어떤 의도와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선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스며들게 되어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구조로 진화하게 된다.

결국 기술은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고, 더욱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과 선택을 유도한다. 이는 인간의 사고가 더 자유로워졌다는 방향이 아닌 자유를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남\*경

: 나는 기술의 발전이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버네이스의 주장에 찬성한다. 버네이스는 대중사회가 성장할수록 정보와 여론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선전이 필수적이라 보고, 선전이 악이 아닌 중립적 도구이며, 이를 공공선에 맞게 사용하면 사회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기술의 발전이 버네이스의 논리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소수의 엘리트나 언론만이 정보를 독점했기 때문에 비사회적 선전이 발생해도 대중이 검증할 수 없었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전에 비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이나 개인의 비사회적 선전이 대중들에게 더욱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정보를 숨기고 조작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또한 여러 사회집단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사회적 선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누군가는 모두가 선전가가 되는 시대가 되며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비사회적 선전을 강화 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정보 생산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상호 검증이 더욱 치열해지며, 누가 선동하든 흔적이 남고,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킨다는 버네이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영

: 비사회적 선전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양의 정보가 더 쉽고 빠르게 소비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개인의 취향이나 행동 패턴 등을 정확히 읽어서 권력 집단이나 어떠한 특정 집단이 원하는 정보를 주입하기 쉬워졌다. 정보가 많지만, 정보에서 실제로 누가 무엇을 보는 지를 결정하는 권력의 힘이 새로운 권력으로 나타났다. 비사회적 선전을 개인을 타겟팅해서 만드는 기술이 많아졌다. 그래서 기술은 선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식으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 3. 이상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조작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문\*영

: 나는 이상적 목적을 위한 정보의 조작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적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객관적이 기준이 아니라, 특정 주체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어떤 목적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그 목적은 개인 혹은 집단의 선택된 해석일 뿐이며, 그 해석을 근거로 타인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통계 자료를 조작하는 상황에서 설령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국민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은 채, 특정 집단이 대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이 실제 통계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작된 정보가 용인된다면, 그 기준은 언제나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 기준의 '이상적 목적'이라는 개념의 평가나 해석은 더이상 민주적이지 못하게 된다. 나는 정보는 결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선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리 의도가 이상적이고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해도,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영

: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체를 이끌면 자칫하면 큰 피해가 생긴다거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의 조작을 통해서라도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큰 피해를 입지 않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기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위기를 정보를 조작하여 넘긴다면 안될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선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경

: 이 논제에 나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벼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조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안전 장치라고 생각한다. 버네이스가 선전이 사회를 조직화 하는데 필수 장치라고 말했듯이 공익,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4. 선전의 성공 과정이 환경의 변화라면 환경의 변화로 발생한 지출이나 이념이 있는가?

남\*경

: 있다. 나의 경우 이전까지는 비교적 주체적 소비를 하며 살아온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리즘의 등장 이후 내가 물건을 사는 욕구 자체가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되며, 무의식적 구매가 늘어나게 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누리며, 나만의 맞춤형 취향이라고 느끼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알고리즘 환경이 설계한 취향의 콘텐츠를 누리며 나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영

: 선전의 성공이 환경의 변화라면 이를 통해 발생한 지출이나 이념은 무조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는 예는 인공지능 챗봇이 거의 모두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챗봇에게 판단과 생각을 맡긴다. 정보 수용자인 '나'보다 정보 공급자인 챗봇을 믿는 탓에 이러한 결과가 유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전문가와 데이터를 오히려 광신도처럼 믿는 이념이 퍼졌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감정 호소 글에 사실을 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이러한 이념의 결과다.

문\*영

: 선전의 성공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환경 변화 속에는 분명한 이념이 스며들어 있다고 느꼈다. 문제는 그 이념이 대중에게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분명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택의 범위 자체가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지출은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의 약화라고 느껴졌다. 효율과 편리함,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점점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고, 어느 순간 그 질서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묻지 않게 된다. 결국 선전은 거짓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한다는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 5. 프로파간다에 나온 '선전'이라는 개념이 동물농장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가?

남\*경

: 버네이스는 선전이 단순 설득이 아닌 내면적 욕망과 감정을 재배치하는 기술이라고 봤다. 여기서 핵심은 욕망이나 감정 같은 내면적 동기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선전은 즉, 외부 자극인 아닌 내면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외부적인 감시를 받지 않을 때조차 7계명을 기억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중에는 그 기준이 바뀌어도, 기존의 자신의 기억을 불신하고 눈 앞에 7계명을 믿는 지경에 이른다. 버네이스는 이것을 '사회적 무의식의 재배치'라고 봤다. 즉 사람은 자신이 직접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미 주어진 구조 속에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선전의 최고 단계는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단계이다.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반사적으로 구호를 외친다.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심지어 과거가 바뀌어도,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재구성한다. 이를 버네이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선전은 국가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대중이 스스로 감시하도록 내면을 재조직한 상황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문\*영

: 버네이스의 '선전'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대중의 사고와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만들어낸 언어는 단순한 거짓이 아닌, 동물들의 감정과 기억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그들은 폭력만이 아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문장을 반복하며 해당 체제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동물농장에서의 선전은 정보의 전달을 넘어 동물들의 감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통계와 논리를 들며 돼지들의 특권을 합리화 할 때, 동물들은 그 정보의 진위보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선택했다. 특히 돼지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수정했고, 규칙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성공한 선전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는 나의 느낀점과 유사한 상황이라 보인다. 동물들은 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채, 지배 구조를 스스로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장의 선전은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을 쉽게 조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였으며, 우리가 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영

: 동물농장에서 선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버네이스는 대중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가 그들의 의견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습이 동물농장에서의 스컬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말을 잘하는 돼지인 스컬러는 다른 동물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들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돼지였다. 이러한 개념과 이용을 통해 선전에 대한 공포감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으로 내 의견을 만든다는 것이 실감나기 때문이다.

#### 4회차 소감문

이\*영

:지금까지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이었다. 대중심리를 선전으로 자극한다는 것이 언제부터였을지 책을 보니 알게 되었고, 선전은 단순히 제품 광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품 광고보다 더 큰 개념의 단어였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 책을 읽고 세 사람 모두 의견이 계속 갈려서 더욱 흥미로운 토론과 북토크가 되었다.

남\*경

: 우리는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전이 완벽히 작동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상적 목적을 위한 정보 조작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찬성 입장인 나와 다르게,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조작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반대를 하는 팀원의 주장도 흥미롭게 들었다. 4회차 활동을 통해 정보가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았다

문\*영

: 앞서 소감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저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나의 관점이 생각보다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 같다. 토론을 하면서 각자 선전의 정당화나 공리주의, 뭐 이런식의 사고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느껴지게 했다. 이번 회차를 통해 왜 책만 읽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독서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책은 단지 선전에 대한 효과를 말해준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견해를 통해 바뀌는 모습이 재밌고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느끼게 된 것 같다.

#### 활동 결과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를 통해 우리는 '선전'이 대중을 계몽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시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자는 선전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 주체가 결코 윤리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선전이 점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대중은 스스로 설득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비사회적 선전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보의 '선의' 역시 언제나 의심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문대					
일시/장소	일시	25.11.17 / 15:00~ 18:00			장소	17203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2****	이름	문*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남*경
	참석인원(명)	(3/ 3)		참가자 대표	문*영 (서명)	
도서	도서명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	요한 하리
	출판사	어크로스	출판연도	2023.04.28	번역자	김하현
오늘의 북클럽 주제	알고리즘과 선택의 허상, 내면 침식의 구조					
활동 내용 & 방법						
<p>도둑맞은 집중력의 줄거리</p> <p>: 『도둑맞은 집중력』은 오늘날 사람들이 집중을 잃어가는 이유가 개인의 의지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구조가 정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한다.</p> <p>플랫폼 기업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오래 붙잡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은 우리의 감정·취향·행동을 분석해 더 자극적인 정보만 계속 밀어낸다. 이용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설계한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뿐이다.</p> <p>이러한 정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설계된 정보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가 우리의 관심·감정·판단을 '조용히'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은 집중력 위기의 본질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생산·배치·조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며, 우리가 다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 <p><b>I. 활동 개요</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이번 북클럽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중심으로, 기술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주의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집중력 상실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설계된 결과임을 확인하며, 자유로운 선택이라 믿는 소비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토론하고자 했다.</p> </div>						

## Ⅱ. 활동 방법

### 1.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각자 느꼈던 감정 공유

이\*영

: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현실을 보는 사람'과 '가상에 갇힌 사람'이 나뉘어지며 생기는 일들이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직접 보고,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비교적 아래 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플랫폼이 설계한 가상 공간에 갇힌 채, 가상에 머무를수록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한채로 계속해서 조종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 큰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할 지 깨달았고, 오늘날 정보 환경에서 무엇을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경

: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소셜미디어를 만든 창업자, 기술자가 자녀에게는 절대 소셜미디어를 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듯한 이미지를 프레이밍하면서도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해로움에 자녀들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보여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내용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며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단순히 재미만 느낀다고 하여도 중독을 시키기위한 프로그램이기에 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것은 쉽고 당연한 결과겠다고 생각을 했다. 알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다.

문\*영

: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은 알고리즘 상태의 정확성을 보고 평소에 내 목소리가 녹음된 것 같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사실은 너무나 정확한 예측성이 만들어낸 우연이라는 장면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나와 자주 상호작용하는 주변 인물들과 나의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력이나 적중률이 그 정도에 입각해 있다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념에 대한 조정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계몽과 같은 장점과 사고력을 주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어떤 종류의 인간군상이든, 매우 높은 지능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자본가들에게 편안하게 잠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한 진정한 인간의 사유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초기 이후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2. SNS 알고리즘을 통해 현실에 반영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영

: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은 사례는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요즘 느끼는 건 옷을 살 썸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새로운 옷과 이런 게 유행이다 하고 보여주는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내 소셜미

디어에 자꾸 등장해서 옷을 자꾸 보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신기한 점은 내가 옷을 사자마자 싹 사라지고 옷 말고 다이어트 식품이나 먹을 거, 운동 관련 제품을 띄운다. 내가 옷을 사니까 몸매에 대한 것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무섭다고 느껴질 지경이었다. 내 취향은 싹 없어지고 남이 만든 내 취향만이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편리한 것일지 나를 잃어가는 과정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조금의 통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경

: 그동안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고 싶은 물건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고 믿었는데, 문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물건 등의 나의 취향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배달앱이나 SNS에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음식, 물건들과 특정 시간대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광고 등 나의 클릭 한 번으로 무한하게 제공되는 피드들을 보며, 진정 나의 선택으로 소비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알고리즘이 설계하고 선택한 취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문\*영

: SNS에서 작용하는 알고리즘이 실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에 확실하다. 과연 지금 얘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나의 많은 부분이 알고리즘이 영향을 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음식인 것 같다. 평생 먹지 않았을 것 같은 음식이라던가 평소에는 크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음식이 SNS에 자주 보여지거나, 유행이라고 얘기될 때 항상 그 맛이 궁금해져 한 번은 사먹게 되는 것 같다.

### 3. '동물농장'식 정보 조작과 알고리즘 조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경

: 일방적인 점이라고 생각한다.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가공해 다른 동물들에게 주입하며, 돼지들이 말하는 정보들이 곧 현실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이러한 점이 알고리즘 조작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정보를 먼저 보는지 등을 일방적으로 설계한다. 결국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일방성을 띠게 된다. 또한 동물들이 규칙이 바뀐 줄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며 유도된 설계를 따라간다

이\*영

: 소송에서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해 부족이 현재 알고리즘과 닮아있다. 현재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닮았다. 또 이방인에서는 사회가 정해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알고리즘도 내가 알고리즘을 따라가게끔 만든다는 점이 닮았다고 생각된다. 또, 동물농장에서는 돼지들이 정보를 선별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점이 알고리즘이 나에게 띄우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점이 닮아있다.

문\*영

: 지금까지의 문학에서는 다른 시대와 맥락에서 출발하지만 오늘날 알고리즘 사회의 실질적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직접적인 강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체계 속에서 스스로를 순응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송에서 왜 우리는 특정 정보가 주어지는 알지 못한 채 흐름을 받아들이거나 합리적 변화라고 오인하는 이 과정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 정보는 중립적인 전달물이 아닌, 노출의 빈도와 방식, 감정적 반응을 통해 인간의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기능한다.

현대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과 반응을 학습해 가장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이는 이방인속 사회가 뒤흔들고 감정 규범에 맞춰 재해석 했든, 우리

는 스스로 원해서 클릭한다고 느끼지만, 그 구조는 이미 조율된 구조인 것이다.  
가장 유사한 지점은 '선택의 자유'라는 감각이다. 문학 속 인물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오늘날의 개인 또한 무한한 선택지를 가진 것이 아닌 알고리즘이 설계한 경로 안에 머물게 된다. 이처럼 문학이 경고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은 이제 기술이라는 얼굴을 하고 일상 속에 자리 잡았으며,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편리함으로 수용하는 단계이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그 구조를 가장 정교하게 실현하는 장치라고 보인다.

#### 4.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남\*경

: 사실 가장 확실한 것은 정보를 알고리즘을 통해 편향되어 수집하는 것이 아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확실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정보 수집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책, 신문 등)을 활용해서도 정보를 습득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의도적으로 찾아보는 등 정보 습득의 스펙트럼을 넓혀 정보를 골고루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영

: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관심없는 콘텐츠나 정보도 한 번씩은 보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나를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만 다루지 못하게끔 산발적인 정보를 본다면 알고리즘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도 대항이라면 대항일 것이다.

문\*영

: 개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식은 뻘한 이야기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책이 전부 다 맞고 논리적이거나 이상적으로 다 괜찮은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한 저자의 견해만 담긴 책을 여러권 읽는 것은 알고리즘이 유도하는 일방적 견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5회차 소감문

이\*영

: 예전에 읽다가 너무 두꺼워서 포기한 책이었는데 심비우스 북클럽을 목적으로 다시 읽으니 새로웠다. 다른 책들과 비교하며 읽게 되어서 더욱 재미있던 것 같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대화도 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남\*경

: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소수의 집단이 여론이나 소비 행동 등을 조용히 설계하고 조정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자유 의지가 정말 자유 의지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활동 또한 인상 깊었다. 특히 나의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에 나의 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기에, 없다는 주장을 들었을 때 조금 놀라웠고, 흥미로웠다. 이러한 5회차 활동을 통해 우리가 정보를 선별할 때 얼마나 설계된 상황 속에서 선별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문\*영

: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문학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 더욱 밀접한 이야기나 지금 나의 상태, 공감되는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었던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프로파간다라는 책부터 진정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활동 결과
-------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알고리즘이 개인의 인지와 감정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게 했다. 특히 사용자의 성향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자유의지마저 조작 가능한 영역이었음을 확인했다. '합리적 선택'이 사실상 구조화된 유도였음을 직면하게 하며, 정보 소비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였다.
--

활동 자료
-------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문대					
일시/장소	일시	25.10.20 / 15:00~ 18:00			장소	17203
참여 인원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2****	이름	문*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이*영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	이름	남*경
	참석인원(명)	(3/ 3)		참가자 대표	문*영 (서명)	
도서	도서명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저자	마크 코켈버그
	출판사	생각이음	출판연도	2023.07.25	번역자	배현석
오늘의 북클럽 주제	기술의 객관성 신화 속에서 정보는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활동 내용 & 방법						
<p>(1장~3장)</p> <p>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의 줄거리</p> <p>:인공지능을 중립적 기술로 보는 시각을 반박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기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데이터로 만드는지, 누가 어떤 가치 기준을 넣는지, 그 결정이 누구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지 등에 대한 결정 자체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을 강조한다.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자유는 양의 문제가 아닌 내가 어떤 정보와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자율성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다. 인공지능은 설계방식에 따라 기존의 불평등, 편향을 재생산하고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차별과 불평등, 편향을 담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였다면 권력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예시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을 지적한다. 인공지능을 규제하거나 설계할 때 반드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p> <p><b>I. 활동 개요</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이번 북클럽은 마크 코켈버그의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를 중심으로, 기술이 중립적인 도구가 아닌 특정 가치와 권력 구조를 내포한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문제의식과 알고리즘과 자동화된 판단이 사회적 불평등과 편향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p> </div> <p><b>II. 활동 방법</b></p> <p><b>1.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를 읽고 각자 느꼈던 감정 공유</b></p>						

이\*영

: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치적 권력을 어떠한 책보다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누구나 느낄법한 불안과 그 불안을 관리해줘야 하는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서 지적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거의 모두가 편리함과 효율만을 따지는데 인공지능이 재생산할 수 있는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다루는 점 또한 인상 깊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닌 책임의 주체와 현실로 일어난 인공지능의 편향된 정보 주입과 결과 제시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또한 흥미로웠다.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경

: 책을 읽으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을 공정하게 설계하려 해도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정보 자체가 이미 사회적 편향을 내포하고 있어, 결국 인공지능도 편향된 정보를 재생산한다는 문장이었다. 추천 알고리즘이나 검색 엔진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설계된 환경 안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보여주며 현실을 재편한다. 결국 인공지능의 공정성은 단순한 기술 설계만이 아닌, 데이터의 출처와 의미,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문\*영

: 심비우스를 통해 관련 책들을 많이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전에 잠깐 광고홍보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습득한 내용이나 기술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사회적으로 좋은 기술이나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록 그에 따른 견제를 위해 나도 기술에 대한 지식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다.

## 2.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각자의 견해

이\*영

: 기술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기술로 모든 사회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책임의 주체가 없어진다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책임의 주체가 없다면 벌어지는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효율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도구 판단하여 직접적인 결정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술 만능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남\*경

: 원래 나는 기술 만능주의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때의 긍정적 효과는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어림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이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져도,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를 벗어나 완전히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책을 통해 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독립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기술 자체를 나쁘게만 보거나, 무조건 신뢰하는 대신, 기술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사회적 맥락과 책임

문제 고려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술은 문제 해결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영

: 기술 만능주의는 편리함과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사고와 자유를 점점 잠식하게 하는 위험한 신화라고 느껴진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합리적이고 계몽된 사회로 나아간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기술은 인간의 윤리나 존엄을 기준으로 발전해온 적이 거의 없으며, 언제나 자본과 효율,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화해왔다고 느낀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예측하고, 집중력을 흐트리고, 행동을 유도하면서도 그 작동 방식은 철저히 비가시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사고하는 주체가 아닌 반응하는 객체가 되었다.

기술 만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적응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그 적응 과정에서 사유의 여지, 비판의 틈, 느낌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3. 인공지능의 정보 편향으로 발생한 사고

남\*경

: 2024년 2월 미국 기업(workday)의 자동 면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종, 나이, 장애 유무 등 특정 집단에 유리/불리하게 작동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여기에는 50대 이상 지원자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다든지,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위험도 높은 인물로 자동 분류되는 등의 편향이 존재했다. 특히 해당 기업과 사용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판단한 것이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영

: 인공지능의 정보 편향으로 과거 아마존에서 사용한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들을 불이익 처리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지원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여성을 차별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 4. 기술 혹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영

: 한계 극복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용량 데이터처리와 계산을 통해 인간의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하여 시간이라는 한계에 덜 영향받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와 계산 필요로 하는 목적 등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도구로서의 유용성과 효율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는 시간이라는 한계에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남\*경

: 나는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러 경험들을 해왔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술의 도움으로 걷는 등 기술의 발전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사례는 기술이 인간의 능력들을 더욱 확장해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준다. 나는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해주는 도구라는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만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이다. 기술의 발전이 뛰어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영

: 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기 보다, 오히려 그 한계를 훨씬 정교한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결점은 편향된 인지 자원과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이 한계를 교정하기보다 그 위에 구조적으로 편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존재이기에 완전히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러한 점이 인간의 한계라고 보았는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인간의 편향을 비판적으로 걸러내기보다, 오히려 데이터를 통해 수치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착시킨다고 생각한다.

## 6회차 소감문

이\*영

: 마지막 북클럽 활동이라 조금 아쉬웠다. 솔직히 주에 한 번 책을 읽고 토론까지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이렇게 흥미로웠던 적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책을 골랐다고OT 때 걱정해주셨는데 그래도 다 읽고 토론과 이야기를 모든 책에 대해서 나누었다는 뿌듯함이 생겼다.

남\*경

: 책 속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정보 편향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찾아 나가며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게 설계한다 한들 인공지능 스스로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편향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이 정말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편향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회차였다.

문\*영

: 원래 해당 책이 아니었어서 책을 읽는데, 초반에 걱정이 많이 생겼었는데, 생각한 것과 달리 너무 잘 맞는 도서를 다시 재선택된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다. 다같이 인공지능이 편향적인 이유에 기술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다들 새로운 견해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 총 소감

남\*경

: 6주 동안 총 6권의 책을 읽으며 깨달은 점은 우리는 정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보가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뒤에는 항상 권력과 그 권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자유롭다는 착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들이 내포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이미 구조가 설계해둔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우리는 정보가 중립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구조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는지 등 비판적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영

: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되고 배치된다. 정보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책은 결국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누가 정보를 만들고, 누가 보여주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보가 구조화되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착각하며 그 구조에 종속된다.<o:p></o:p>  
특히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알고리즘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미끼로 작동하지만, 그 내부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자의 가치와 목적 등이 숨어 있다. 동물농장처럼 권력자나 정보 생산자, 정보 통제자 등이 정보를 재구성하면 집단의 기억과 판단이 바뀌듯, 현대의 알고리즘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을 편집한다. 이게 곧 '선택의 자유'라는 허상의 형성 과정이다.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그 선택은 노출된 항목과 반복에 의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선택일 때가 많다. 또한 과거의 편향적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계 학습을 통해 '객

관적 근거'로 포장되어 다시 사회적 불이익을 생산한다.<o:p></o:p>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의심하는 것과 직접 정보 찾아보기 등이 있는 것 같다.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바로 믿어보는 것이 아닌 한 번 의심하고, 개인이 교차검증을 통하여 찾아보는 것이 대응의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준이나 무엇을 학습하는 지등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 조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직접 최소한의 것을 알려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응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문\*영

: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나는 그동안 너무 쉽게 믿어왔던 '정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의심하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정보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이라 생각하지만, 『소송』, 『이방인』, 『동물농장』, 『프로파간다』, 『도둑맞은 집중력』, 그리고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를 따라가며, 정보는 결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권력과 감정,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재가공되고 재해석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우리의 북클럽 목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정보가 더 이상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권력에 의해 구성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재조직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화씨와 섭씨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들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정보 역시 절대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해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는지, 어떤 감정을 유도하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마 이 북클럽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변화이며,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활동 결과

이번 북클럽의 마지막 회차는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보의 구조를 재편하고 개인의 사고방식과 선택에 개입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특정 가치와 이해관계를 내포한 '정치적 장치'임을 인식하며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 활동 자료